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13일 화요일 음 8월 27일 (4월)

기상정보

대체로 맑음



대체로 맑겠다. 아침 기온은 15-17°C. 낮 최고 기온은 20-23°C로 예상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recipitation probabilities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sunrise and sunset times for Jeju.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and temperature forecasts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관심, 보통. Rows show food safety and other weather-related information.

월드뉴스

변호사 시험 도중 출산한 '슈퍼 맘'

진통 참으며 시험 치러 화제

변호사 시험을 치던 도중에 진통이 왔지만, 통증을 견디며 시험을 마친 후 병원으로 이동해 아이를 출산한 '슈퍼 맘'의 소식이 화제다.



시험 도중 출산한 브리애나 힐과 그의 아들.

현지시간 11일 시카고의 로올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브리애나 힐(28)은 임신 38주째였던 지난 5일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다.

시험 2교시에 본격적으로 진통이 왔지만, 시험장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컴퓨터 앞을 떠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원래대로라면 임신 28주째에 시험을 볼 예정이었던 힐은 "새로 나온 일정을 보고선 '병원에 누워서 시험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농담을 했는데 말이 씨가 됐다"고 전했다.

진통을 참으며 시험을 본 그는 그 날 시험이 끝나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해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다.

시험 시작 30분 후부터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는 그는 "지금 양수가 터지면 안 돼"라고 혼자 되뇌었다. 시험 도중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힐은 "이 모든 과정을 지지해주고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면서 "남편과 동생, 로스쿨 친구들의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리일보 advertisement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

한라칼럼



이윤희 선임기자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엄습한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일이다.

그 풍경에서 '제한도' (歲寒圖)의 이미지가 오버랩된다.

시련이 닥치고 나서야...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제한도는 제주 유배시절에 그린 그림이다.

'제한'은 '추운 계절이 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들음을 안다'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는 논어의 자한(子罕)에서 유래했다.

코로나19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생태학자들은 곤충과 동물의 서식환경의 변화로 감염병 발생은 더욱 잦아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젠 비대면에 익숙해져야만 하는 세상이다. 마스크를 쓴 채 이제껏 없었던 추석을 맞이하고 보니 이전의 소소한 일상이 그리워진다.

그러한 시절이 그림다. 비로소 마스크 없이 지내던 일상, 마음껏 누리던 자연의 소중함이 와닿는다.

그 의미를 가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11월 제한도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특별전시를 열어 공개할 계획이다.

한도와 관련된 제주 몇몇 곳에서 영상을 담았다. 추석 연휴 기자의 지인에게서 제한도 특별전을 위해 한라산 촬영에 대한 도움 요청이 있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협조 아래 찍을 수 있었다.

특별전은 진품 제한도를 볼 수 있는 더없는 기회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관람 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중앙박물관 전시에서 내년에는 제한도의 고장 제주에서 볼 수 있는 전시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코로나19로 혼란과 고통을 겪는 시대에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되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

열린마당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때



고민관 제주해양경찰서장

전쟁에서 이기는 힘은 철저한 준비와 다양한 전쟁 시나리오에 대한 가상의 전쟁을 끊임없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한다.

전쟁을 방불케하는, 겨울철 선박을 집어삼킬 만큼 높은 파도와 칠층 같은 어둠까지 더해진 차가운 바다에서 인명구조도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준비와 가상 전쟁'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제주바다의 차가운 수온은 해양에서 많은 인명피해 발생으로 이어진다. 최근 5년간 해양에서의 인명피해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사망·실종자(92명)의 50%(46명)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



최수훈 서부소방서 애월119센터 소방사

맑은 가을 하늘을 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기분이 든다.

가을 하늘의 '깨끗함'을 공직사회에 빗대어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청렴'이라고 생각한다.

청렴은 사회적 요구에 더해 법적으로도 요구되는 중요한 공직 덕목이고 국가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정도를 가능하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가공무원법'을 통해 엄격하게 공무원의 청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 '목민심서'에 불법과 비리를 자행하

지 않아야 세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워진다고 했고 청렴 준수야말로 공직유리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건이 빈번하게 보도되며, 그럴 때마다 공무원들은 국민들에게 질책 대상이 된다.

물론 공무원들도 사적 이익에 현혹될 수 있지만 공무원이라면 자신의 사익 추구 행동보다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마음가짐이다.

시대가 발전하고 지식수준이 점점 높아진 만큼 국민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청렴 의식도 함께 높아졌다.

이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투명하고 공직문화가 정착된다면 공무원과 국민이 함께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Asmi 4, 5-year-old products, featuring a list of items and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International Protection Fund (국제보청기프라자), offering government support and insurance services.

Advertisement for Donggu Dental Clinic (동구치과의원), providing dental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Jeju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제주농업농촌소식), providing information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